

## SSCI와 한국사회과학의 향방: 지식생산의 식민성을 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강명구\*\*

이 논문은 대학교육 개혁의 흐름 안에서 사회과학인용지수(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이하 SSCI)를 중심으로 교수의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독자적 한국 사회과학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연구성과 평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SCI가 특성을 3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SSCI는 미국 그리고 영어 사용권 중심 저널이며 동시에 행동과학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임을 밝혔다. 둘째, SSCI에 등재된 논문들을 발행하는 연구자들은 미국의 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비미국/비유럽 학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학 상위 저널에 실린 비서구 지역 연구자의 논문은 1% 미만, 사회학은 3.2%, 커뮤니케이션학은 2.7%에 불과했다. 셋째, SSCI에 등재된 비미국/비유럽 학자들의 논문들의 연구관심과 연구문제가 지역사회로부터 도출되었다기 보다 미국과 유럽의 주류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독자적 연구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칙을 제안하고자 했다.

주제어: SSCI, 지식생산, 대학개혁, 사회과학, 교수평가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대토론회 “한국 사회과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도” 2008년 9월 11일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1. 들어가는 말

2008년 8월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법인화의 구체적 형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핵심내용은 정부의 지원은 크게 확장된 형태로 요구하면서, 대학의 내적 자율은 키운다는 것이다. 법인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대학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대 역시 향후 20여년은 커다란 구조변동을 겪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현재의 조직과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상황의 절박성에 비추어 볼 때 서울대 내부 구성원들의 관심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즉각적으로 구성원들의 이해를 건드리지 않는 한 관여하지 않으려하고, 또 무관심하고자 한다. “좀 그냥 놓아 두면 알아서 잘 할 텐데”라는 분위기가 주도적이라고 한다. 사실 대학은 좀 조용하고 사회의 변화에 둔감하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외부사회는 대학에 대해 그냥 놓아두어도 잘 한다는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변화하지 않을 조직이라는 불신이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어느 판단이 옳은지는 차치하더라도 믿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서울대 내부에서 볼 때에도 자연대, 공대 등 이공계열 대학들은 지난 20여년간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의 진입으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겪어 왔다. BK21 1단계, 그리고 2단계를 거치면서 빨리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개방적 경쟁체제를 지내왔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개혁하고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그 결과 물리학부, 수리과학부, 재료공학부 등등의 여러 학부들은 논문 영향력 지수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이공계 전체적으로는 세계 20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서울대 연구처 2005). 공대 한 학부의 경우 자체 평가의 기본 방향을 양에서 질로 전환한 뒤(예를들어 SCI 논문수 보다는 국제적 수준에서 동료평가를 이용한 질적 평가를 준거로 채택) BK21 양적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평가를 중시하는 내부적 준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방향에 부응한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2008년 BK21 사업단 평

가의 기준이 양적 평가 보다는 질적 평가를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서울대 내부에서 이공계가 경쟁체제로 오래전 진입한 반면, 인문사회계 열은 학문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교수 개인의 자긍심과 헌신에 기초해서 연구와 교육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이들 인문사회계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의 성과는 서울대 자체가 키웠다가 보다 외국대학(그것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해 왔다. 지난 20여년간 인문사회계에 진입한 교수들의 질적 수준은 객관적으로 평가된 일은 없으나 세계적 수준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와 지식경제가 주도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과 지식생산을 선진국 대학에 맡길 수만은 없게 되었다.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이 서울대는 미국대학원의 feeding school이고 그것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질책은 뼈아픈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원천지식(source knowledge)을 생산할 수 있는 지식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서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원천지식을 생산하는 지식생산 기반과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반 구축을 서울대 발전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인문사회분야의 교수충원과 교수평가 역시 이러한 기본방향을 염두에 둘 때 만 비로소 구성원들의 협력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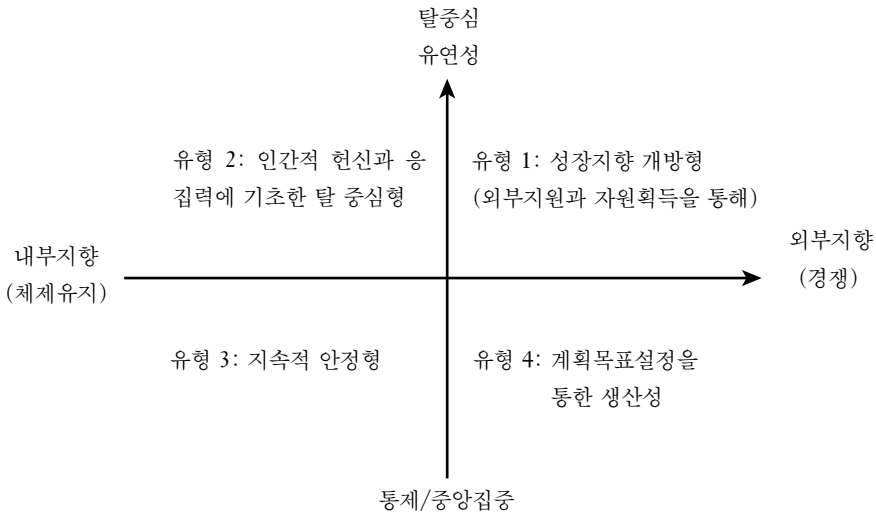
이 글은 사회과학을 사례로 해서 어떻게 해도 한국의 사회과학이 원천지식과 창의적 인력양성의 토대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과제에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서울대를 하나의 사례로 서울대 내부 조직문화의 지향성의 성격을 검토한다. 셋째 절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제안되고 시행된 SSCI 저널 중심 평가척도의 문제를 원천지식 생산기반에 어떤 작용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넷째는 교수평가의 대안을 위해 평가의 원칙을 제시하고, 마지막 절에서 평가 원칙에 근거한 평가의 구체적 방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 2. 대학조직의 성격과 지향: 서울대 조직의 사례

서울대 대학조직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 Faerman과 Quinn(1985) 고등교육 조직이론 평가모형에서 제안된 조직의 유연성과 통제, 내부지향성과 외부지향성이라는 두가지 준거모형을 이용해 서울대 조직성격에 응용해서 도해 1과 같은 대학조직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집중과 탈중심이라는 지향성과 내부지향과 외부지향이라는 조직성격에서 볼 때 서울대는 중앙집중화된 조직문화 위에 내부지향성이 강하고 구성원들의 자기헌신과 응집력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이뤄낸 '지속적 안정형' 조직(유형 3)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그리고 지구화로 인해 한국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이후 서울대 역시 경쟁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조직의 성격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서울대가 어디를 지향하는가는 교육과학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학정책, 사회와 산업의 요구에 따라, 교수, 학생, 직원 등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인화된 동경대, 교토대 등 우수한 일본대학은 유형4를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교육과학부 역시 정책적 수준에서 통제를 유지하면서 국립대학을 경쟁상태로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법인화를 둘러싼 내부의 논의와 논쟁을 거칠게 되돌아 보면 정부는 계획과 목표설정을 통



〈그림 1〉 대학조직의 성격과 지향성 유형

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학정책을 지향하는(유형 4)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서울대 법인화 보고서(2006)를 비롯해 서울대 집행부가 제시한 서울대 발전방안을 통해 추론해 보면 성장지향 외부형 모형(유형 1)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오랫동안 그 정점에 있었던 서울대의 역사적 위상을 고려하면 미국이나 영국의 고등정책이 지난 20여년간 집중적으로 추구해온 개방형 경쟁체제(대체로 유형 1이나 유형 4)는 자칫 서울대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발적 헌신에 기초한 조직문화를 해칠 위험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구성원들의 사기저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개혁정책이 원하는 생산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필자는 서울대는 유형 1과 유형 2의 결합모형을 개혁의 지향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이름 붙이자면 “헌신과 응집력에 기초한 개방적 탈중심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대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다음적에서는 교수평가의 전제로서 연구와 교육에 대한 서울대 독자적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안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까지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SSCI 중심의 교수평가가 지니는 문제를 간략히 분석하기로 한다.

### 3. SSCI 중심의 교수평가가 지니는 문제

‘사회과학인용지수’ (Social Science Science Citatsm Indes: SSCI)는 전국대학이 채택하거나 채택하고자하는 교수 평가의 지표가 되었다. 교수를 채용할 때 심지어 SSCI 논문이 없으면 지원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고, SSCI 논문을 게재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학도 많다고 한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역시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는 저널에 실린 논문도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SSCI를 중요한 평가의 준거로 채택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SSCI를 가장 중요한 연구성과 평가의 척도로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징 1: 미국 혹은 영어권 중심, 그리고 행동과학중심의 데이터베이스

〈표 1〉 국가별 SSCI 등재 저널 숫자 (2007년)

국가별 ssci 등재 저널 수 비교		
미국	1018	54.58%
영국	467	25.04%
네덜란드	116	6.22%
독일	67	3.59%
캐나다	25	1.34%
스위스	24	1.29%
프랑스	20	1.07%
호주	19	1.02%
스페인	8	0.43%
일본	7	0.38%
노르웨이	6	0.32%
러시아	6	0.32%
벨기에	5	0.27%
멕시코	5	0.27%
중국	5	0.27%
스코틀랜드	5	0.27%
남아공	5	0.27%
스웨덴	5	0.27%
오스트리아	4	0.21%
체코	4	0.21%
인도	4	0.21%
이탈리아	4	0.21%
뉴질랜드	4	0.21%
브라질	3	0.16%
덴마크	3	0.16%
아일랜드	3	0.16%
슬로바키아	3	0.16%
한국	3	0.16%
아르헨티나	2	0.11%
칠레	2	0.11%
크로아티아	2	0.11%
터키	2	0.11%
콜롬비아	1	0.05%
핀란드	1	0.05%
이스라엘	1	0.05%
리투아니아	1	0.05%
폴란드	1	0.05%
포르투갈	1	0.05%
싱가포르	1	0.05%
슬로베니아	1	0.05%
대만	1	0.05%
총합	1865	

- 미국 영국의 저널이 약 80%를 차지

〈표 3〉 SCI 등재 저널 중 IF가 높은 64개 저널이 속하는 연구분야(저널수 순)

순서	Category	저널의 수	전체인용순위	전체인용
1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8	1	2207432
2	Cellbiology	8	3	1029071
3	Genetics & Heredity	6	11	593960
4	Immunology	5	8	688990
5	Neurosciences	5	4	1024673
6	Medicine, General& Internal	4	7	695155
7	Oncology	4	6	726819
8	Pharmacology& Pharmacy	4	10	642819
9	Chemistry, Multidisciplinary	3	5	773231
10	Chemistry, Physical	3	9	645427
11	Developmentalbiology	3	49	192042
12	Medicine, Research & Experimental	3	30	360056
13	Microbiology	3	21	430214
14	Physiology	3	34	349492
15	Astronomy& Astrophysics	2	17	463240
16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2	27	383432
17	Multidisciplinarysciences	2	2	1159693
18	Physics, Condensed Matter	2	19	449411
19	Biology	1	56	176385
20	Biophysics	1	32	354827
21	Chemistry, Inorganic & Nuclear	1	41	250342
22	Ecology	1	29	360523
23	Endocrinology & Metabolism	1	18	455238
24	Evolutionarybiology	1	74	126068
25	Materials Science, Multidisciplinary	1	16	484920
26	Physics, Applied	1	15	493141
27	Physics, Multidisciplinary	1	13	529006
28	Plantsciences	1	24	406231
29	Polymer Science	1	38	267520
30	Psychiatry	1	35	344332
31	Spectroscopy	1	80	112605
32	Toxicology	1	60	163262

〈출처: Bensman(2008)〉

Bensman(2008). Distributional differences of the impact factor in the sciences versus the social sciences: An analysis of the probabilistic structure of the 2005 journal citation repor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ume 59 Issue 9, Pages 1366-1382.

〈표 4〉 SSCI 등재 저널 중 IF가 높은 60개 저널이 속하는 연구분야(저널수 순)

순서	연구분야	저널의 수	전체인용순위	전체인용
1	Psychiatry	12	1	231229
2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10	5	122244
3	Psychology, Clinical	7	4	129700
4	Psychology, Experimental	7	3	130817
5	Law	5	12	54316
6	Psychology, Developmental	4	8	86738
7	Business	3	10	78427
8	Economics	3	2	161856
9	Gerontology	2	16	39052
10	Health Policy& Services	2	14	42762
11	Information Science & Libraryscience	2	29	21758
12	Management	2	7	87417
13	Psychology, Socialpublic,	2	9	81007
14	Environmental& Occupationalhealth	2	6	89982
15	Geography	1	31	19760
16	Politicalscience	1	21	32586
17	Psychology, Applied	1	13	46754
18	Psychology, Biological	1	18	34130
19	Psychology, Psychoanalysis	1	49	6898
20	Sociology	1	11	54738
21	Substance Abuse	1	27	23923

- 60개의 상위 SSCI 저널이 21개의 카테고리로, 70회 분류됨.
- 21개 중에서 9개가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며, (psychiatry, psychology, psychoanalysis) 특히 상위 6개 중에서 5개(Psychiatry;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Experimental; Psychology, Developmental)가 행동과학에 속하는 것임.
- 이 5개의 상위 연구분야에는 40회의 저널분류가 되어 있으며, 이는 70회의 분류 중에서 약 57.1%를 차지하고 있음.
- 이 5개의 상위 연구분야에 속하는 저널들은,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영향권 (purview) 안에 있는 것들이며, 자금을 잘 끌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음.



〈표 5〉 사회과학대학 9개 과별 영향력지수 상위 60개 저널 보유 순위(2005년 자료기준)

학과	저널보유 개수
정치학과	1
외교학과	0
경제학과	3
사회학과	1
인류학과	0
심리학과	45
지리학과	1
사회복지학과	0
언론정보학과	0

우선 SSCI 등재저널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에서 보듯 SSCI등재 저널을 발행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1,018 개(54.58%), 영국 467 개(25.04%)로 두 나라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어권 중심성이 두드러진다. 반면 일본 7개, 중국 5개, 한국 3개로 경제력에 비해 대단히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SSCI 등재저널의 질은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로 표현된다. 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한다고 하는 SSCI 등재저널 중 영향력지수가 높은 저널 60개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표 4〉에서 보듯 상위 21개 SSCI 저널 가운데 9개가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그것도 심리학과 의료(health) 관련 분야 저널이고, 특히 상위 6개 중 5개의 저널이 심리학 분야에 속해 있다. SSCI 등재저널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동과학분야 저널을 과도하게 색인(index)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향성은 과학분야의 SCI 등재저널들이 생명공학과 의학분야에 집중돼 있는 현상 〈표 3〉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대학 9개 분과학문 분야에서 60개 상위저널의 수를 분석한 〈표 5〉는 이러한 분야의 편파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런 까닭에 SSCI를 중심으로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자를 선정하면 많은 경우 심리학과 교수가 선정되는 결과를 낳게된다.

〈표 6〉 사회과학분야 3개 분과 학문의 최근 10년간 미국, 유럽, 비서구 국가에서 생산된 논문의 수와 비율.

	정치학(총합 = 1176)				사회학(총합 = 1038)				커뮤니케이션학(총합=1142)				
	APSR	AJPS	PA	합계	ASR	AJS	BJS	합계	POQ	JOC	CT	CR	합계
총합	416	553	207	1176	416	338	284	1038	252	406	197	287	1142
미국	389 (93.51)	532 (96.20)	194 (93.72)	1115 (99.64)	363 (87.26)	281 (83.14)	15 (5.28)	659 (63.49)	237 (94.05)	329 (81.03)	175 (88.83)	250 (87.11)	991 (86.78)
유럽	24 (5.77)	18 (3.25)	10 (4.83)	52 (4.67)	45 (10.82)	49 (14.50)	251 (88.83)	345 (333.24)	13 (5.16)	56 (13.79)	21 (10.66)	30 (10.45)	120 (10.51)
비서구	3 (0.72)	3 (0.54)	3 (1.45)	9 (0.81)	8 (1.92)	8 (2.37)	18 (6.34)	34 (3.28)	2 (0.79)	21 (5.17)	1 (0.51)	7 (2.44)	31 (2.71)

※ 선정 저널(2007년 IF 상위 저널 기준)

- ※ 1. 공저자의 경우 한 명 이상이 유럽이나 비서구의 국가에 속해 있을 경우 우선 유럽이나 비서구로 분류함.
- 2. 여기서 유럽은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서 OECD에 가입한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을 포함함.

〈정치학〉

APSR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정치학분야 IF 2위), AJPS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정치학분야 IF 3위), PA = Political Analysis(정치학분야 IF 1위)

〈사회학〉

ASR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사회학분야 IF 2위), AJS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사회학분야 IF 1위), BJS =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사회학분야 IF 3위)

〈커뮤니케이션학〉

POQ = Public Opinion Quarterly(커뮤니케이션학분야 IF 1위), JOC = Journal of Communication(커뮤니케이션학 분야 IF 6위)

CT = Communication Theory(커뮤니케이션학 분야 IF 4위), CR = Communication Research(커뮤니케이션학 분야 IF 3위)

특징 2: SSCI 등재논문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비유럽/비미국 지역의 학자는 SSCI에 거의 논문을 게재하지 못한다.

〈표 6〉은 정치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영향력 상위저널에 10년간 실린

〈표 7〉 최근 5년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1년 평균 impact factor	비고
1	public opinion quarterly	1.28	1	1,509	1.55	2.03	1.4738	비커뮤니케이션
2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612	1,526	1,08	1,372	1,476	1,4132	행동
3	Communication Research	1,145	1,018	1,255	1,056	1,481	1,191	행동
4	Communication Theory	0.683	1,263	1,472	1.05	1,465	1,1866	이론
5	Media Psychology	1,167	1,276	0,786	1,152	1.41	1,1582	행동
6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0.925	0,671	0,802	1,387	1,836	1,1242	행동
7	Journal of Communication	0.793	1,213	1,134	1,159	1,156	1.091	행동+질적
8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0.861	0,875	1,357	1	1,185	1,0556	행동+질적
9	Cyberpsychology & Behavior	0.896	0,874	1,028	1,061	1,368	1,0454	비커뮤니케이션
10	Health Communication	0.889	0,902	0,929	1,169	1,047	0.9872	행동
11	Political Communication	0.854	0,644	1,261	1,118	1,039	0.9832	행동
12	Communication Monographs	0.596	1,214	0,442	0,909	1,512	0.9346	이론
13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0.6	0,739	0,913	0,978	1.34	0.914	비커뮤니케이션
14	Technical Communication	0.927	0,516	0.85	0,731	1,212	0.8472	비커뮤니케이션
15	Public Culture	0.687	1,074	1,216	0.81	0.333	0.824	이론+질적
16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0.663	0,823	0,718	0,989	0.87	0.8126	행동
17	Science Communication	0.705	0,372	0,692	0.8	1,395	0.7928	비커뮤니케이션
18	Journal of Advertising	0.741	0,926	0,491	0,667	1,043	0.7736	행동
19	Discourse & Society	0.677	0,803	0,787	0,714	0,729	0.742	이론+질적
20	New Media & Society	0.689	0,562	0,855	0,988	0,488	0.7164	행동
21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0.88	0,642	0,743	0,478	0,395	0.6276	
22	Narrative Inquiry	0.414	0.9	0,457	0,438	0.812	0.6042	
23	Telecommunications Policy	0.849	0,329	0,458	0,705	0,593	0.5868	
24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0.367	0,488	0,846	0,525	0,561	0.5574	
25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0.72	0,902	0,412	0,475	0,149	0.5316	
26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0.1	0,517	0,931	0,719	0,378	0.529	
27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0.44	0,461	0,631	0,704	0,382	0.5236	
28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0.393	0,511	0,544	0,688	0,359	0.499	
29	Language & Communication	0.25	0,778	0,562	0,382	0,488	0.492	
30	Quarterly Journal of Speech	0.523	0,976	0,447	0,333	0,121	0.48	
31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0.512	0.5	0,262	0,429	0,634	0.4674	
32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0.208	0,472	0,354	0,522	0,686	0.4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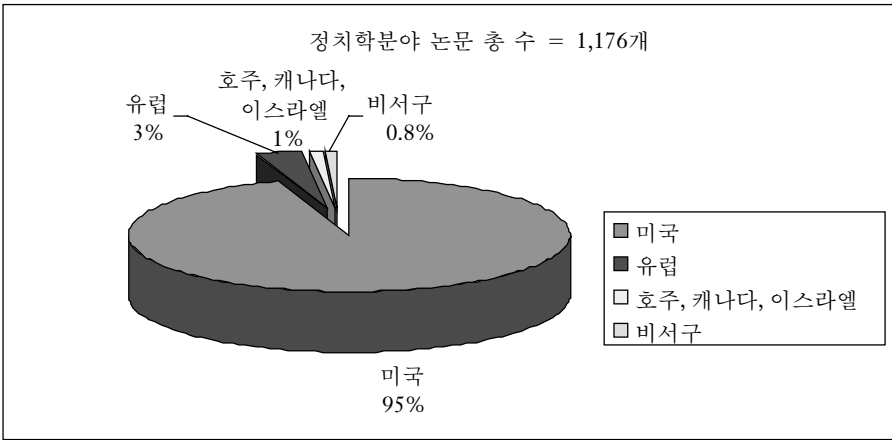
〈표 7〉 계 속

		2003	2004	2005	2006	2007	1년 평균 impact factor	비고
33	Media Culture & Society	0.347	0.385	0.429	0.418	0.641	0.444	
34	Written Communication	0.467	0.156	0.394	0.594	0.485	0.4192	
35	Journal of Business And Technical Communication	0.393	0.28	0.5	0.448	0.464	0.417	
36	Public Relations Review	0.458	0.559	0.273	0.296	0.297	0.3766	
37	Discourse Studies	-	-	0.476	0.471	0.929	0.3752	
38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	-	-	1.591	0.3182	
39	Journal of Media Economics	0.393	0.267	0.606	0.125	0.192	0.3166	
40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	-	-	-	1.232	0.2464	
41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0.342	-	0.333	0.071	0.406	0.2304	
42	Ieee Transactions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	-	-	-	0.98	0.196	
43	Javnost-The Public	0.16	0.14	0.213	0.051	0.151	0.143	
44	Text	-	-	-	0.289	0.423	0.1424	
45	Text & Talk	-	-	-	-	0.333	0.0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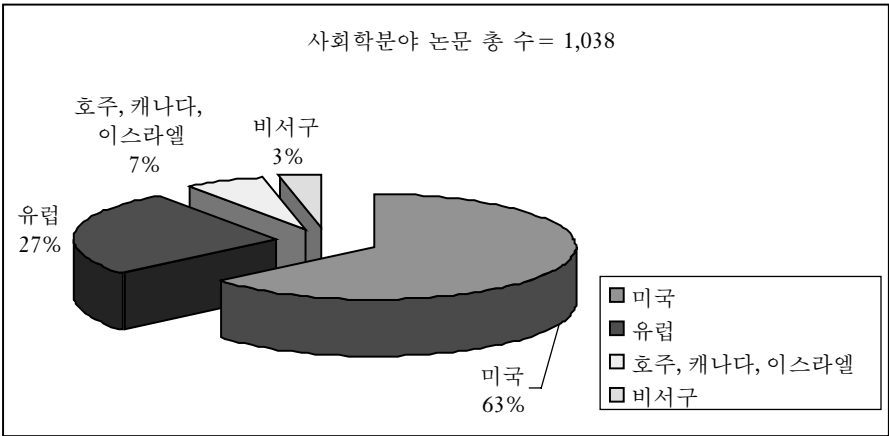
— 커뮤니케이션분야의 특징

- ① media studies나 저널리즘이 포함되지 않음.
- ② 심리학과 연관된 저널의 IF가 높음
- ③ 비판적, 거시적인 특성의 저널보다는 현상적, 미시적인 특성의 저널의 IF가 높게 나타남.

논문의 저자가 활동하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이다. 저자의 지역별 귀속은 저자가 표기한 학교나 연구소가 소속된 나라를 집계했다. 〈표 6〉에서 보듯 정치학분야에서 북미와 유럽(그리고 호주와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의 필자가 쓴 논문의 총수가 9편(0.8%)이었다. 〈그림 1〉에서 보듯 정치학분야에서 3개의 산위저널에 실린 논문 총수 1,176개 가운데 미국연구자가 95%, 유럽 3%,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1%였고 비서구는 0.8%에 불과했다. 사회학 상위 3개저널에는 지난 10년간 전체 1,038편의 논문 중 34편 (3.28%)의 논문이 비북미 비유럽 국가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림 2〉는 사회학 분야의 실정을 잘보여준다. 사회학에서 유럽이 높은 까닭은 상위 3개 저널중 하나가 British Journal of Sociology이기 때문에 유럽지역 필자들이 많이 기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나라별 논문필자를 보여주는 표이다. 지난 10년간 전체 1,142편의 논문 중 미국 86%, 유럽 7%,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4%로 나타났고, 비서구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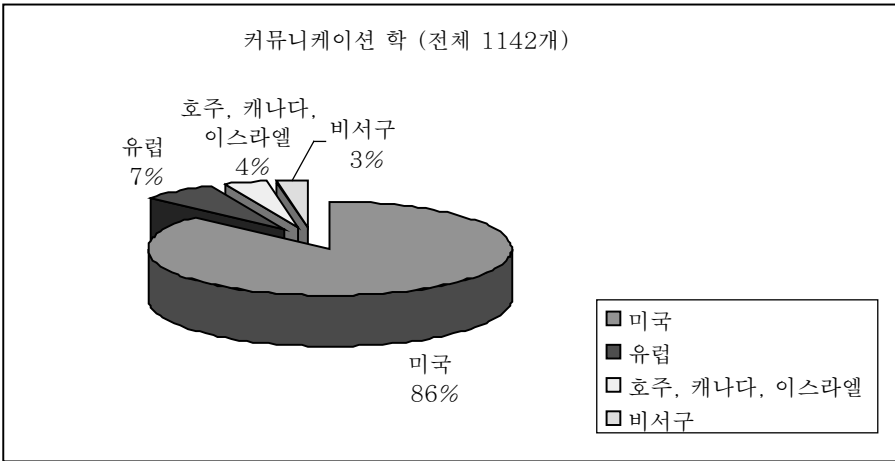


〈그림 1〉 정치학 3개 저널에 실린 총 논문 중, 미국, 유럽, 비서구 국가에서 생산된 논문의 비율(1998~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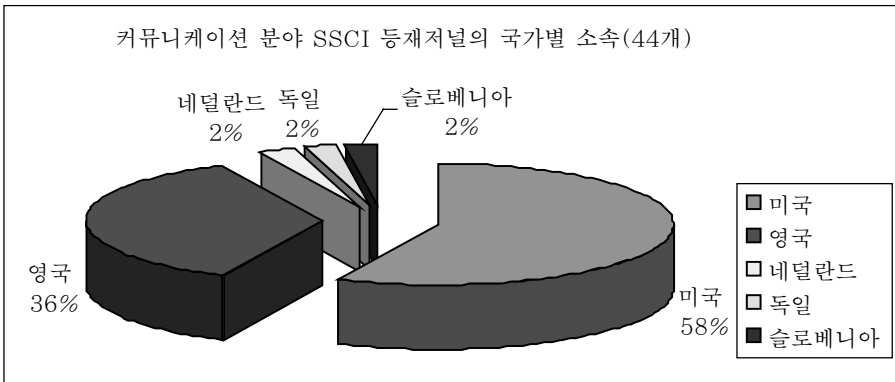


〈그림 2〉 사회학 3개 저널에 실린 총 논문 중, 미국, 유럽, 비서구 국가에서 생산된 논문의 비율(1998~2007)

3%였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SSCI 저널이 44개인데, 이중 미국 58%, 영국 36%, 기타지역 6%였다. 저널 소속국가 보다 논문 필자의 지역분포가 훨씬 편중도가 높은 셈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총 1,142편의 논문 중 31편(2.7%)이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북미와 유럽이 아닌 지역의 대학이나 연



<그림 3> 커뮤니케이션학 4개 저널에 실린 총 논문 중, 미국, 유럽, 비서구 국가에서 생산된 논문의 비율(1998~2007)



<그림 4> 커뮤니케이션 분야 SSCI 등재 저널의 국가별 소속

구소에 소속된 학자가 이들 정치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SSCI 등재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100명중 2명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아시아, 남미지역 연구수준이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징 3: 지역사회로부터 연구관심과 연구문제를 도출한 연구는 SSCI에 거의 발간되지 못한다.

필자가 활동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 분야에서 비북미 비유럽 국가에서 발간된 SSCI 논문의 성격은 주로 서구의 이론을 테스트하고, 대상을 달리해 가설을 검증하는 논문이 대다수이고, 연구관심이나 연구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도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 4개 분야 저널에 실린 34편의 논문을 일별한 결과, 서구의 이론을 테스트하는 replication 유형이 대부분이었고, 나름대로 서구의 개념이나 이론을 지역의 조건에 맞게 재정의하거나 교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소수의 논문들이 연구관심과 연구문제를 지역사회로부터 도출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별도의 분석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Kang, 2004).

특징 4: SSCI 등재저널은 각 분과학문분야를 균형있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지 못한다.

다른 사회과학 분과 학문이 대체로 마찬가지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다수 저널역시 행동과학, 특히 심리학에 편중되어있다. 더욱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는 행동과학을 하시는 교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미디어 연구, 저널리즘 연구, 문화와 역사 연구를 주전공으로 한다. SSCI 커뮤니케이션 상위 20개 저널들이 대다수 행동과학과 심리학 분야에 속해 있는 반면 저널리즘 관련 논문을 실을 수 있는 저널은 최소한 상위 20위 안에 없고, 전체 44개 저널 가운데 저널리즘을 실어주는 저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법론적으로도 실험연구방법, 고급통계분석방법, 등을 활용한 연구가 이들 상위저널에 주로 실린다.

이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분야 교수의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SSCI는 부분적으로만 유용할 뿐,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로 사용할 경우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생산 경쟁력을 크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리하면, SSCI 저널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학자들이 상호 인용하는 좋은 저널을 평가하고, 발간된 논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임에 틀림없다. 사회과학의 경우 행동과학적 접근을 중시하는 심리학과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더욱 그

릴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했듯이 SSCI를 사회과학 각 분과학문분야에서 학문적 성과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저널들이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사회과학의 연구관심과 이론적 경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아니면, 이들 저널에 논문을 발간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 비미국/비유럽 저자가 정치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 1~5%에 불과한 상황이 이를 잘 말해준다. 더구나 비미국, 비유럽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능력과 연구성과가 열등해서라기 보다, 주류 연구관심과 이론적 논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절에서 교수평가를 위해 다원적 평가 체계를 만들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4. 독자적 교육과 연구평가 시스템 구축의 원칙

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서비스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수들에게 가장 중시되는 것은 연구이고, 교육은 이차적인 게 사실이다. 대학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얼마나 좋은 인력을 양성했는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육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대학 수준에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학부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책무가 교수 개개인이 담당하는 학과목의 질을 유지하는 데 그칠 수는 없다. 학부 졸업생들이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졸업생들을 어떤 인력으로 키워내고 있는가라는 전체 성과가 교육적 책무일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교수의 교육평가를 개별 강의평가 수준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성과 전반에 대한 교수의 기여도를 평가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9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 학부와 대학원 교육은 사실 학생들을 방목하고 있었다. 모든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훈련을 거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파고가 한국사회에 도래한 이래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비정규직 폭발, 정규직 노동안정성의 붕괴로 귀결되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진학율은 83%에 이



르렸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율이 30%를 넘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 수준에서는 사법 행정고시, 의대와 의학전문대 열풍이 불어, 상위 1~3%의 학생 대다수가 의대와 법대를 지망하는 절망적 사태가 1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의학,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 뿐만 아니라 공대, 농대 등 전학문 분야가 전문대학원 준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대 4학년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위가 토지개발공사라는 비공식적 조사 자료는 이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월급은 많고 직업안정성이 높은 직장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아니고, SKT와 같은 통신회사도 아니었다. 의대 법대,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학부교육이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졸업생들이 사회진출 이후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냐에 대해 인문사회과학 대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자료를 축적해서 교육의 성과와 연관지우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학부 교육의 현상이 이렇게 왜곡되면서 서울대 인문사회계 대학원 역시 오래전부터 학부졸업생이 본과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왔다.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지적하기 어렵지만, 사회대 각 학과에서 본과 출신 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은 평균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학부졸업생의 진출통계를 분석하지 않는 상황 역시 얼마나 시사적인가). 서울대 사회대 박사과정의 진학률은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석사 진학률 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할 것이다. 여전히 외국대학 학위에 대한 선호, 사회대 내부의 박사과정에 대한 스스로의 불신 때문에, 서울대 학위자가 외국 우수대학 학위취득자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은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의 경쟁력은 이런 점에서 교육성과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대학원 학생들의 경쟁력을 성과의 지표로 삼을 경우 개별 교수의 강의평가에만 의존할 수 없고,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들어 사회대 각 학과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어디에 취업하는가를 교육성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자료를 추적하고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개별 교수가 아니라 학과 전체의 교육성과 평가와 연동되어야 한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한 동안 인

류학과는 비공식적으로 박사과정 학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수의 교수인력으로 경쟁력 있는 박사를 키울 수 없다는 학과 교수들의 자기평가에서 그런 교육지책을 채택했다고 한다.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감동했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엄격한 평가에 근거해서 영터리 학생을 키우느니, 유학 보내는 게 낫다는 태도. 그러나 서울대가 스스로 학문 후속세대를 기르는 일을 포기하고 언제까지 외국대학에 의존할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구적 수준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는 원천지식과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자체기반을 구축해야하고, 서울대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0여년간 이공계 위기, 인문학의 위기로 이 제기되었고, 나름대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되어 왔다. 공대와 자연대는 물론 인문대조차 외국의 석학들을 초청해 인문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자연대와 공대는 대부분의 학부가 외국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고, 평가를 정리화 했다. 그러나 사회대는 아직 이런 움직임에서 뒤쳐져 있는 셈이다. 결국 사회대 교육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학과의 평가 위에 개별 교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균형 있는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학과평가와 교수평가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 1) 경쟁과 존중의 균형적 조화 원칙

지난 10여년간 서울대의 교수별 성과(performances) 평가는 교수별로 학과별로 이루어졌다. 교수 평가는 양적 척도 중심이었다. 양적 평가 덕택에 서울대 SCI 논문 수와 영향력지수의 순위가 20위권으로 상승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공계의 경우 양에서 질로 평가기준을 고양시켜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인문사회계는 논문 편수 중심의 평가에 대해 상당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교수들의 연구를 질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임용, 승진, 정년보장과정에서 평가를 엄격히 하고, 성과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경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다. 세계적 수준의 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풍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수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미세한 부분에서 제도적 수준까지 다양하다. 임용

되는 과정과 임용 후 신입교수에 대한 배려, 연구와 교육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연구실 시설, 도서와 자료 습득을 통한 연구지원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지원체계는 최고수준의 학자를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볼 수 없다. 신입교수에 대한 지원에서 보듯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예산부족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존중과 배려의 풍토는 행정부문에서 지원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BK21, 핵심과학지원, 학진지원 정책 등등 대학개혁은 교수들의 경쟁을 조성하는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적 풍토가 상당한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이로인해, 장기적인 수준에서 연구계획을 세우고 느리지만 꾸준히 연구성과를 내는 연구자를 알아보는 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양 중심의 평가 때문이기도 하고, 모두가 경쟁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쟁의 소용돌이는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어렵게 한다(물론 경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교수들 사이에 상호존중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자리잡고 있었는가는 또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런 점에서 교수공동체의 내부 문화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수공동체 내부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적 사고가 요구된다.

## 2) 경쟁과 협동의 균형적 조화의 원칙

지식생태계는 경쟁과 상호의존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개별 교수의 경쟁만으로 세계적 수준의 학문공동체를 구축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서울대라는 하위 지식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요구되는 상호의존과 협동의 체계는 교수와 교수, 학과와 학과, 교수와 학생, 교수와 행정지원 체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학과 안에서 누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강의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게 일반적 상황이다. 학과간의 담장도 대단히 높아서 학과 간 협력의 사례도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간의 상호의존의 체계도 별달리 없다. 이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교수사회의 성찰과 반성, 문제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긴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예산과 교수정원, 학생정원이 모두 학과단위로 이루어지고,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 연구활동에 대해 교수들의 선의에 기대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협동과 상호의존의 체계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형과

지식의 내용이 학제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학의 기본 운영체제는 학과단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과 홀로, 교수 홀로 자신의 이익 챙기기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교수의 이해가 학과의 이해와 충돌할 때, 학과의 이해가 단과대학의 이해와 충돌할 때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는지 세밀하게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이해와 교수의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이 이뤄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복수전공학생들 학생의 소속학과와 복수전공학과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배려하는지, 핵심교양과목이 교양교육의 필요에 의해 선정되는지, 해당학과와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정되는지 등등).

경쟁과 협동이 동시에 일어나 상생하는 대학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간, 학과간, 단과대학간 협동과 상호의존의 활동을 지원하는 평가체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3) 평가의 합리성과 투명성의 원칙

교수평가나 학과평가 모두 평가절차와 기준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현재 대학이나 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평가는 형식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이 채용, 승진, 정년보장의 실제 운영방식이 최고수준의 대학에 요구되는 실질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교수나 학과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과가 장기발전 계획, 중단기 발전계획서를 확정하고, 여기에 따라 대학본부 혹은 단과대학이 교육단위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K21프로그램은 매년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외부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별 교수 단위보다 학과나 교육, 연구단위의 평가에 근거한 차등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5. 학과와 교육프로그램 평가 방안<sup>1)</sup>

### 1) 학과평가

#### 문제와 현황

공대 자연대 등 소수의 단과대학에서 학과별 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 본부 차원에서 학과별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수평가는 교수개인의 평가만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학과 단위 혹은 동일계열을 묶어서 평가함으로써 개인단위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선방안

1. 3년 혹은 5년 단위에서 학과 혹은 프로그램 평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2. 학과 평가는 단과대학이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3. 학과평가의 내용은 커리큘럼, 교육내용의 개선과 혁신, 학생에 대한 학과수준의 보살핌과 배려, 대학원 운영체계, 교수 연구활동과 교육활동 지원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2) 학과 평가의 기준

#### (1) 학과의 목표와 운영체계

지표(indicator): 프로그램 발전 전략과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발전전략과 장기계획에 필요한 자원과 확보전략을 확보하고 있는가.

근거자료(evidence): 발전전략문서, 장기발전계획문서, 학과 운영과 평가 매뉴얼, 학과 교수회의록, 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서, 교수들에 의한 교육단위와 세부프로그램 평가, 외부인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 교수채용 결정과정에 관련된 문서 등등.

1) 이 부분은 필자가 2006년 서울대 발전위원회에 보조자료로 제출했던 부분을 활용했음.

(2) 커리큘럼과 강의

지표: 해당 분과학문이 요구하는 지식과 변화에 대응하는 커리큘럼 개혁, 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강의내용이 해당분야 지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강의 방법을 혁신하고 있는가 등등.

근거자료: 강의계획서와 강의보조자료, 과제물과 시험문제, 학생의 강의평가

(3) 다양성과 포용성(inclusiveness)

지표: 학과 교수와 학생의 구성원의 다양성(외국인 교수 및 학생), 외국어 강의

근거자료: 해당 통계, 해당 통계치의 증감

(4) 교수평가

지표: 교수평가에서 별도로 서술했음

(5) 학과의 연구활동

지표: 학과가 요구하는 연구의 수준과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근거자료: 교수채용, 승진 문서, 학과 연구활동지원 제도 관련문서와 통계

(6) 학생을 위한 서비스

지표: 취업, 대학원 취업, 학부 대학원생 지도와 면담제도, 교과과정 이외 학과 활동지원제도, 취업지원활동

근거자료: 성적표, 논문지도, 학생지도 관련 문서, 장학제도,

(7) 자원과 시설

(8) 전문적, 공익적 서비스

## (9) 교육성과

지표: 학생의 교육성과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 학생의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평가계획, 커리큘럼과 개별 교과목의 내용혁신을 위한 학과 내부의 장치

근거자료: 학생의 훈련된 능력 평가 계획(무엇을 얼마만큼 배웠는가, 예를 들어 글쓰기 포트폴리오, 인턴십 포트폴리오 등등)

참고: 교육성과 평가의 4가지 수준

- 1) 교과관련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강의내용 혁신 평가,
- 2) 인터뷰와 설문: 4학년 졸업시 인터뷰, 4학년생 설문조사,
- 3) 외부 평가: 자문위원 인터뷰, 고용자 평가조사
- 4) 학생 자체 경쟁력: 전국, 국제 수준의 수상, 논문발표 성과, 저서출판 등등

## 3) 학과 평가제도의 운영

절차:

① 학과의 발전 목표와 전략: 각 학과 혹은 프로그램은 매년 자체 평가보고서와 차기년도 발전계획서를 제출한다. 단과대학 학장은 각 학과의 자체 평가보고서와 발전계획서를 수집하여 단과대학 전체수준에서 평가서와 발전계획서를 본부로 제출한다.

② 학과는 해당 학문분야에서 각 학과와 소속 교수들이 어떠한 학문적 성과와 성취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 외부평가를 받도록 한다.

③ 대학본부는 단과대학과 학과평가를 위한 교수발전 위원회(faculty development committee), 학과발전 위원회(department development committee)를 구성 운영한다. 교수평의회가 이들 위원회 운영을 맡을 수도 있다. 외국의 경우 faculty senate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많이있다.

④ 학과 평가를 위한 자체 평가, 외부평가, 본부 위원회 검토와 결정의 1년 일정을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교수와 학과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6. 교수평가를 위한 방안

### 1) 연구활동 평가의 당면문제:

(1) SSCI와 학진인증 학술지 논문 중심의 평가 문제. 양적 평가에 치우쳐 실질적 학문적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부재한 점은 앞 절에서 논의했다. 대인으로서의 SSCI 저널을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것보다는 여러 지표중에 하나로 설정하는게 타당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장기적 작업에 기초한 저서평가 제도의 부재하는 문제. SSCI든 학진등재지든 논문의 숫자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선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5년, 10년 동안 연구하는 저술 작업은 별달리 평가받지 못한다. 소위 책으로 승부한다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견 참 이상한 게, 미국의 우수대학들이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테뉴어 심사를 할 때, 우수한 출판사에서 저서를 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우리는 단순히 논문의 숫자만 헤아릴 뿐이다. 그 까닭은 많은 경우 논문은 객관적 지표(SSCI, 학진등재 등등)가 있는데, 저서는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논문은 학회에서 거르니 문제가 될 게 없고, 저서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적 축적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른 건 차치하고 교육부나 언론 그리고 대학개혁을 외치는 행정가들이 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은 구두선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저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논문의 숫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수준에서 실사 타임즈 평가 100위안에 들었다고 해서, SCI 35위가 됐다고 해서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자임할 수 있겠는가.

저술은 긴 호흡의 글쓰기다. 한 가지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몇 년간 달라붙어 하는 연구 작업이다. 20세기 들어서서 과학기술 분야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저술보다는 논문중심으로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회의 프로시딩이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다. 이공계 분야에서 책은 교과서를 제외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그나마도 한 사람의 단독연구도 어려워 다수 공동



저자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규모 연구팀이 치열하게 속도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인문사회분야 역시 논문이 주요 학문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긴 호흡의 저서 역시 주요한 연구 성과를 표출하는 형식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논문숫자만을 평가하는 학술진흥재단과 BK21의 평가기준은 이미 책쓰기 작업의 무용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문으로 SSCI나 학진등재 논문을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200% 인정받는 저서를 양산하는 풍토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런 수준이하의 연구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풍토에서 혼을 쏟아 저서를 쓰고자 하는 학자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문제인 것이다. 결국 논문 숫자 중심의 평가는 10여년 한 주제에 달라붙어 연구한 '이 한 권'의 저서를 평가하지 못하는 풍토를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셈이고, 서울대 역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논문이든 저서든 관계없이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내는 학자는 단순히 논문이나 저서의 수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논문 중심의 평가는 최고수준의 학자를 제대로 기를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연구자는 스스로의 열정으로 몰두하고, 그러한 열정에 대해 존중하는 풍토가 중요하다. 정말 최고수준의 대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소학자들이 많아야 하고, 이들 소학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그러한가를 객관적인 잣대로 측정해서 선발하고자 하면 진정으로 탁월한 학자는 도망가는 것 아닐까.

부 록

〈참고자료 1〉 SSCI 지수 설명

Journal Title	Total Cites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Articles	Cited Half-life
Evolutionary Anthropology	807	3.138	0.25	16	7.3

total cites(총인용 횟수) — 말 그대로 2007년 그 저널이 SSCI에 등재한 논문들에 인용된 총 횟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Evolutionary Anthropology’ 라는 저널의 경우, 2007년에 총 807번 인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articles(총 논문 수)이란 2007년 한 해 동안, 그 저널에서 총 생산된 논문의 수를 의미한다. Evolutionary Anthropology의 경우 2007년에 총 16개의 논문이 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immediacy index는 2007년에 그 저널에 생산된 논문이, 2007년 SSCI에 등재된 다른 저널에 인용된 횟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Evolutionary Anthropology의 경우 2007년 총 16개의 논문이 실렸는데, 그 중에서 2007년에 다른 SSCI 저널에 4회 인용되었기 때문에, immediacy index는 0.250이 된다.

마지막으로 cited half life라는 개념은 ‘인용반감기’ 정도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7년 총 인용된 횟수를 구한다 (Evolutionary Anthropology의 경우는 807). 그 다음 각 연도별로 인용된 횟수의 누적 백분율을 최근의 년도부터 나타낸다. 그래서 당해(2007년)부터 누적하여 그 누적량이 50%가 넘는 최초 년도(2000)으로 뺀 숫자가 앞자리로 가고, 소수점 아

Cited Year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all
# Cites from 2007	4	33	58	35	104	84	63	76	66	112	172
Cumulative %	0.50	4.58	11.77	16.11	29.00	39.41	47.21	56.63	64.81	78.69	100

래는 산출법에 따라 정해 진다.

이 cited half life는 오래 전에 출판된 특정 저널의 논문이 아직도 인용되고 있는 지를 보여 주는 지수로, 반감기가 10년이 넘는 것은 일괄적으로 '>10years' 로 표시된다.

〈참조: Journal Citation Report 2008 해설서〉

〈참고자료 2〉 정치학분야(political science) 2007년 영향력 지수 (Impact Factor) 순위와 주요 저널의 특성주석: 정치학과 권형기 교수가 작성)

순위	저널 이름	Total Cites (총 인용 횟수)	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Immediacy Index	Articles (총 논문 수)	Cited Half-life (인용 반감기)
1	Political Analysis	453	2.535	0.545	22	5.2
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23	2.317	0.269	52	>10.0
3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28	2.032	0.306	62	>10.0
4	Public Opinion Quarterly	2189	2.03	0.658	38	>10.0
5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509	1.975	0.081	37	>10.0
6	Political Geography	828	1.922	0.652	46	6.5
7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304	1.679	0.279	68	7.4
8	European Union Politics	309	1.651	0.625	24	4.6
9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	1.636	0.154	13	
10	Journal of Politics	1960	1.456	0.2	75	>10.0
11	Political Psychology	738	1.405	0.138	29	5.9
1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871	1.386	0.395	43	8.3
13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30	1.359	0.176	17	6.5
14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08	1.311	0.263	38	9.5
15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917	1.213	0.273	55	6.7
16	New Left Review	643	1.156	0.031	32	9.8
17	Electoral Studies	506	1.123	0.709	55	6.3
18	Political Communication	409	1.039	0.105	19	7
19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60	1	0.139	36	5.6
20	Policy And Politics	300	0.91	0.074	27	6.7

순위	저널 이름	Total Cites (총 인용 횟수)	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Immediacy Index	Articles (총 논문 수)	Cited Half-life (인용 반감기)
21	Politics & Society	386	0.902	0.053	19	7.3
22	Journal of Peace Research	778	0.892	0.342	38	8
23	Political Behavior	383	0.879	0.095	21	>10.0
24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80	0.872	0.15	20	8.4
25	Governance-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350	0.865	0.308	26	6.3
26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999	0.836	0.275	69	9.3
27	Post-Soviet Affairs	113	0.833	0.062	16	6.5
28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64	0.826	0.125	24	>10.0
29	Party Politics	352	0.8	0.406	32	6.2
30	Political Science Quarterly	434	0.784	0.143	21	>10.0
31	Europe-Asia Studies	342	0.77	0.091	55	6.2
32	Environmental Politics	301	0.756	0.15	40	6.5
33	American Politics Research	131	0.723	0.108	37	3.9
34	Publius-The Journal of Federalism	190	0.722	0.04	25	8.7
35	West European Politics	499	0.704	1.451	51	5.4
36	New Political Economy	195	0.702	0.333	30	4.9
37	Survival	206	0.684	0.075	40	4.8
38	Journal of Democracy	683	0.663	0.277	47	6.9
39	Jcms-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84	0.653	0.273	44	6.5
40	Armed Forces & Society	239	0.636	0.133	30	9.7
41	Acta Politica	97	0.605	0.333	21	
42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	0.582	0.132	38	6.4
43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234	0.581	0	28	6.4
44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05	0.571	0.067	15	6.2
45	Human Rights Quarterly	363	0.565	0.088	34	7.8
46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89	0.562	0.042	24	6.1
47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47	0.561	0.083	24	5

순위	지널 이름	Total Cites (총 인용 횟수)	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Immediacy Index	Articles (총 논문 수)	Cited Half-life (인용 반감기)
48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180	0.553	0.273	22	6.1
49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122	0.529	0	28	5.4
50	Public Choice	1386	0.527	0.086	105	>10.0
51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85	0.524			
52	Policy Studies Journal	286	0.515	0	58	7.4
53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105	0.509	0.037	27	4.2
54	Comparative Politics	491	0.489	0.167	24	>10.0
55	Political Studies	399	0.488	0	39	7.4
56	Local Government Studies	154	0.486	0.263	38	4
57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36	0.486	0.214	56	7
58	Political Theory	374	0.453	0.029	34	9.8
59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41	0.45	0	24	6.8
60	Ps-Political Science & Politics	584	0.43	0.688	96	8.3
61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146	0.413	0.346	26	5.6
62	Problems of Post-Communism	65	0.368	0.069	29	
63	Dissent	119	0.352	0.1	30	5.9
64	Nation	606	0.352	0.13	162	8.7
65	Monthly Review-An Independent Socialist Magazine	162	0.344	0.085	47	6.8
66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01	0.343	0.351	37	7.3
67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93	0.3	0.105	19	
68	Parliamentary Affairs	182	0.298	0.081	37	6.7
69	Issues & Studies	115	0.295	0	19	8.1
70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54	0.263	0	11	
71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70	0.26	0.121	33	
72	Policy Review	60	0.245	0	29	
73	Osteuropa	123	0.223	0.071	170	2.4
74	Government and Opposition	148	0.22	0.143	28	4.5
75	Independent Review	49	0.209	0.148	27	
76	Commentary	153	0.204	0.043	47	>10.0

순위	저널 이름	Total Cites (총 인용 횟수)	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Immediacy Index	Articles (총 논문 수)	Cited Half-life (인용 반감기)
77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01	0.192	0.02	50	8.3
78	Current History	105	0.186	0.121	66	4.6
79	New Republic	377	0.175	0.192	99	>10.0
80	Politicka Ekonomie	40	0.172	0.054	37	
81	Political Quarterly	182	0.156	0	46	6.9
82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43	0.146			
83	Internasjonal Politikk	11	0.115	0	25	
84	Revue D Economie Politique	55	0.113	0	36	
85	Politikon	24	0.108	0	13	
86	Chinese Law and Government	43	0.091	0.019	53	
87	Political Science	28	0.087	0	5	
88	Journal of Political & Military Sociology	62	0.061			
89	Internationale Politik	49	0.047	0.025	201	
90	Pensee	23	0.033	0	49	
91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2	0.024	0	5	
92	Russian Politics And Law	4	0.02	0	28	
93	Politica Y Gobierno	8	0			

- 정치학(political science) 분야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순위별 저널의 특성 -

### 1. Political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의 한 소속으로 Methodology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The Society for Political Methodology에서 주관하고 Oxford에서 발행하고 있는 Methodology에 관한 잡지이다. 주로 정치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estimation technique' 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estimation technique을 소개하는 논문이 주로 실린다.

이 저널이 높은 랭킹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분야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productivity를 보이고 있는 분야라는 점이다. field research를 요구하는 연구나 mass survey 분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연

구와 비교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된다. 새로운 하나의 논문을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 분야이다.

다음으로 잡지에 실린 논문들이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에 대한 실천적인 효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논문이라는 점이다. 결국 비슷한 구조의 estimation problem을 안고 있는 사람은 이 논문에 실린 가장 선진적이라고 알려진 분석의 기법을 쓰도록 알게 모르게 강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정한 하나의 사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해석적인 기법으로 쓰여진 논문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결국 그런 논문은 그 논문이 핵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논문의 핵심주장을 반박하고자 하는,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06년에 발행된 APSR 100주년 기념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20개의 APSR 논문을 보면 Nathaniel Beck and Jonathan Katz의 TSCS data 분석기법(panel-corrected standard error)에 관한 논문이 7위 정도(?)에 올라 있다. 이는 이 기법이 비교정치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TSCS data structure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분석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연구자가(비록 분석의 대상은 모두 다를지라도) 인용하고 사용한 결과이다.

## 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에서 발행하고 있는 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저널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정치학의 편향을 보여준다. 몇 년 전에는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내부에서도 이러한 편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서 갈등적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 3.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General Interest를 지향하고 있다. MPSA는 APSA를 제외하고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학회 중(예를 들면 South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최대의 규모를 보인다. 이것도 또한 실증주의적 성향과 technologically advanced(?)된 논문들이 보다 자주 많이 발표

되고 있다.

#### 4. Public Opinion Quarterly

Public opinion 혹은 Mass survey의 기법과 결과 분석에 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는 잡지이다.

#### 5.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International Relation의 하나의 하위 분야로서 Security 관련 쟁점에 대한 논문이 주로 발표되는 Journal로서 비교적 오래된 잡지이지만, 최근의 상승은 한편으로 9/11 이후 증대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 6. Political Geography

Geography를 표방하고 있지만 세계정치에 있어서 환경, 여성, 그리고 지역 분쟁과 같은 지구화, 세계화의 흐름과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이 주로 다루어 지고 있다. 이 Journal의 높은 순위 역시 다루는 문제의 특화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 7.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에서 발행되고 있는 공식잡지. APSR에 대응하는 Europe 정치학자들의 General Interest Journal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8. European Union Politics

European Union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주로 발행되는 Journal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잡지의 높은 순위 역시 위에서 제기한 특화와 관련되어 보인다.

#### 9.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이 잡지 역시 특화와 관련되어 있다. 주로 Positive Political Theory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된다.



10. Journal of Politics

미국의 South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에서 주관하고 Cambridge에서 발행하고 있는 General Interest Journal이다.

11. Political Psychology

정치심리학과 관련하여 특화된 논문들이 주로 발표되는 저널이다.

1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에서 주관하고 있는 International Relation(or Studies)의 대표적인 저널이다.

13.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4.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과거에 유럽권(비미국권)에서 가장 권위를 자랑하던 정치학 Journal의 하나로써, 영국에서 발행되는 General Interest Journal.

15.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익히는 잡지의 하나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나 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연구 또한 간간히 눈에 띈다. 비교정치학 연구의 동향을 연구했던 한 논문에서, 'World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와 함께 비교정치학 분야의 3대 학술지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6. New Left Review

New Left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주로 발표된다. 최근에는 globalization의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들이 자주 발표되고 있다.

17. Electoral Studies

투표와 선거와 관련된 논문들이 주로 발표되고 있다. Elsevier에서 발행되며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 editorial office가 위치하고 있다.

18. Political Communication

정치학과 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communication을 연구하는 학자들간의 학제간 연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발행되는 Journal이다. 최근에는 Networking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는 듯 하다.

19.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학(IPE) 관련한 논문들이 주로 발표되는 학술지이다.

20. Policy and Politics

공공정책 관련 논문들이 주로 실리고 있다.

〈참고자료 3〉 사회학분야(Sociology) 2007년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순위와 주요 저널의 특성 주석: 사회학과 장덕진교수 작성

순위	저널 이름	Total Cites (총 인용 횟수)	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Immediacy Index	Articles (총 논문 수)	Cited Half-life (인용 반감기)
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64	3.338	0.514	37	>10.0
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92	3.277	0.619	42	>10.0
3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957	2.449	0.222	27	9.1
4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84	2.4	0.2	25	9.6
5	Global Networks-A Journal of Transnational Affairs	269	1.886	0.08	25	4
6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1340	1.759	0.164	55	8.5
7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7	1.756	0.296	81	>10.0
8	Economy and Society	901	1.678	0.179	28	8
9	Social Networks	890	1.644	0.765	34	>10.0
10	Social Problems	1520	1.577	0.074	27	>10.0
11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89	1.403	0.194	31	>10.0
12	Gender & Society	1029	1.4	0.121	33	9.7

순위	저널 이름	Total Cites (총 인용 횟수)	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Immediacy Index	Articles (총 논문 수)	Cited Half-life (인용 반감기)
13	Sociology-The Journal of the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1255	1.398	0.317	63	8.4
14	Ethnic and Racial Studies	763	1.395	0.173	52	8
15	Sociology of Education	1249	1.29	0	16	>10.0
16	Law & Society Review	1130	1.283	0.44	25	>10.0
17	Human Ecology	731	1.254	0.263	57	8.4
18	Social Forces	3110	1.244	0.1	60	>10.0
19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960	1.206	0.55	20	>10.0
20	Youth & Society	436	1.056	0.095	21	8.8
21	Society & Natural Resources	915	1.053	0.21	62	6
22	Work Employment and Society	583	1.051	0.059	34	6.2
23	Social Science Research	723	1.048	0.209	67	8.4
24	Theory and Society	694	1.024	0.043	23	9.5
25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361	1	0.214	14	>10.0
26	Mobilization	168	0.978	0.13	23	5.6
27	Sociological Methodology	1023	0.947			>10.0
28	International Sociology	218	0.94	0.208	24	6
29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96	0.938	0.048	42	8.9
30	Politics & Society	386	0.902	0.053	19	7.3
31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77	0.864	0.111	54	9.3
32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67	0.855	0	40	6.1
33	Sociological Theory	541	0.848	0.375	16	8.7
34	Journal of Sociology	142	0.833	0	21	5.4
35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057	0.826	0.079	38	>10.0
36	Rural Sociology	724	0.82	0.292	24	>10.0
37	Work and Occupations	505	0.811	0.308	13	8.4
38	Leisure Sciences	510	0.792	0.5	26	>10.0
39	Journal of Leisure Research	766	0.784	0	31	>10.0
40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238	0.75	0.238	21	6.4
41	Sociological Review	685	0.741	0.18	50	8.9

순위	저널 이름	Total Cites (총 인용 횟수)	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Immediacy Index	Articles (총 논문 수)	Cited Half-life (인용 반감기)
42	Discourse & Society	485	0.729	0.25	28	8
43	Sociological Inquiry	359	0.698	0.043	23	>10.0
44	Sociology of Sport Journal	404	0.651	1.185	27	>10.0
45	Media Culture & Society	317	0.641	0.073	41	7.9
45	Sociologia Ruralis	527	0.641	0.048	21	6.9
47	Sociological Perspectives	402	0.64	0	27	9.6
48	Armed Forces & Society	239	0.636	0.133	30	9.7
49	Sociological Quarterly	639	0.627	0.03	33	>10.0
50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332	0.614	0.118	34	7.4
51	Kolner Zeitschrift Fu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259	0.612	0.167	24	9.5
51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241	0.612	0.382	55	5.8
53	Social Indicators Research	916	0.61	0.109	119	7.5
54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446	0.609	0.128	47	6.2
55	Deviant Behavior	360	0.569	0.136	22	8.5
56	Teaching Sociology	314	0.565	0.12	25	10
57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14	0.541	0.038	26	9.3
58	Sociological Spectrum	163	0.525	0.029	34	7.4
59	European Societies	105	0.522	0.062	32	4.9
60	Journal of Law And Society	172	0.519	0.115	26	7.1
61	Acta Sociologica	309	0.488	0.167	24	9.6
62	Sociological Forum	455	0.444	0.083	24	>10.0
63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169	0.412	0.071	14	7.3
64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73	0.408	0.038	26	9.6
65	Sociology of Religion	214	0.4	0	23	7.9
66	Language in Society	506	0.395	0.048	21	>10.0
67	Zeitschrift fur Soziologie	175	0.38	0	27	9.9
68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48	0.359	0	24	>10.0
69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196	0.341	0.529	17	>10.0
70	Sociologie du Travail	114	0.34	0.077	26	7.8

순위	지널 이름	Total Cites (총 인용 횟수)	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Immediacy Index	Articles (총 논문 수)	Cited Half-life (인용 반감기)
71	Symbolic Interaction	454	0.317	0.147	34	>10.0
72	Society & Animals	162	0.294	0	21	7
73	Race & Class	146	0.289	0.286	14	7.4
74	Contemporary Sociology-A Journal of Reviews	164	0.275	0.2	5	7.8
75	Archives Europeennes de Sociologie	82	0.269	0.083	12	
76	Revue Francaise de Sociologie	186	0.222	0.038	26	>10.0
77	Berliner Journal fur Soziologie	43	0.214	0.077	26	
78	Rationality Aand Society	275	0.2	0.118	17	>10.0
79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04	0.197	0.088	34	>10.0
80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86	0.194	0	17	
81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ya	275	0.194	0.055	237	5
82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226	0.192	0.043	46	8.8
83	Society	157	0.18	0	49	9.4
84	Sociologicky Casopis-Czech Sociological Review	66	0.169	0.2	40	
85	Soziale Welt-Zeitschrift fur Ozialwi- ssenschaftliche Forschung und Praxis	94	0.158	0.118	17	
86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95	0.148	0	13	
87	Human Studies	141	0.128	0.048	21	>10.0
88	Social Compass	76	0.123	0	34	
89	Sociologia	42	0.116	0.111	18	
90	Journal of Political & Military Sociology	62	0.061			
91	Sociologisk Forskning	11	0.048	0.059	17	
92	Drustvena Istrazivanja	52	0.038	0	42	
93	Sociological Theory and Methods	1	0.03	0	11	
94	Polish Sociological Review	12	0.021	0.038	26	
95	Chinese Sociology and Anthropology	5	0	0	14	

- 사회학분야(Sociology)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순위별 저널의 특성 -

1. IF 2점을 넘는 상위 4개 저널 중 3개(American J of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Annual Review of Sociology)는 미국 저널이고 나머지 하나는 영국 저널이다. 특히 미국 저널 3개 중 Annual Review of Sociology는 투고에 의한 저널이 아니라 편집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는 invitation에 의한 저널이므로 비영어권 학자가 invite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위 4개 저널 중 BJS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및 영연방 학자들이 주로 기고하는 저널로서, 미국 학자들의 기고는 매우 적은 저널임. 즉 영어권 내부에서도 미국 학계와 영연방 학계 사이에 어느 정도의 단절이 존재하고 있음. 2. IF 1점에서 2점 사이에 있는 저널들(순위로는 5위에서 25위)은 주로 방법론 분야의 저널 혹은 계량분석을 주로 사용하는 저널들이다. 이 21개 저널 중 방법론/계량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저널은 순위별로 8, 10, 12, 13, 24 등 절반 이하이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citation network analysis 논문들이 어느 정도 나와있는데, 이들 논문에서도 citation network에서 centrality가 높은 학자들은 방법론 전문가들이라는 점이 이미 밝혀져 있다.

3. 2007년 영향력 지수 순위에서 특이한 점은 Social Forces가 18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신의항 교수님의 발제문에도 나오듯이, 미국 사회학계에서는 American J of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가 Big Three Journal이라는 점에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세 저널에 논문을 실으면 다른 저널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 순위가 18위에 불과하다는 점은 특이한 부분임. 4. 하위권 SSCI 저널 중에는 해당 분야 연구자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들어보지 못한 저널들도 꽤 포함되어 있다. 5. 미국 저널이 압도적이고,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이 하위권에 끼어 있다.

〈표 2〉 한국, 중국, 일본의 SSCI 등재 저널

국가	저널명	Impact Factor	언어	SSCI 분류
중국	China Review-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n Greater China	0.348	English	Area Studies
	Chinese Education and Society	0.050	English	Education & Educational Research
	Chinese Law and Government	0.091	English	Law Political Science
	Chinese Sociology and Anthropology?	0.000	English	Anthropology Sociology
	Transportmetrica	0.960	English	Transportation
	IF 합계 및 평균	1.449 (m=0.2898)		
일본	Developing Economies?	0.375	English	Economics Planning & Develop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0.107	Multi-Language	Economics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0.115	Japanese	Psychology, Educational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0.382	Multi-Language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0.273	Multi-Language	Information Science & Library Science
	Psychologia	0.167	Multi-Language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Sociological Theory and Methods	0.030	Multi-Language	Social Sciences, Mathematical Methods Sociology
	IF 합계 및 평균	1.449 (m=0.207)		
한국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0.415	English	Education & Educational Research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0.360	English	Women's Studie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0.170	English	International Relations
	IF 합계 및 평균	0.945 (m=0.315)		

## Directing Soci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Kang, Myungk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the evaluation policy performances that takes count of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as the most significant indicator for faculty members'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SCI journal and the published articles on them in terms of authors' geographical distributions. First of all, the study found that SSCI journals are US and UK centric as well as English centric. More than 95% of SSCI journals have been published in US and UK in English. Second, the authors of the published articles on SSCI journals come mainly from US and UK. When the study looked into the top journals in political science, sociology and communication studies, researchers from non-US and non-Europe rarely published their works in those journals: non-US and non-European political scientists took only 1%; Sociologists 3.2%; Communication researchers 2.7%.

Thirdly, even though non-US and non-European researchers published their works on SSCI journals, their research problems of those articles come from the mainstream US academic communities, not from local realities. Problematic from local realities means that research questions are not borrowed from the mainstream, but come from social contexts in which researchers live. To go beyond such SSCI based evaluation system, the study tried to suggest alternative ways of evaluation system.

**Key words:** SSCI, knowledge production, social sciences, university reform